

탈식민 냉전 속 동아시아 하위주체의 '4·3증언서사'^{*}

고 명 철^{**}

- I. 머리말: 국민국가의 상상력을 넘어서야 할 4·3문학
- II. 언어절(言語絶)의 참사에 대한 하위주체의 '구연적(口演的) 재현'
- III. 하위주체의 '구연적(口演的) 진실'과 저항의 정동
- IV. 동아시아의 탈식민 냉전에 대한 하위주체의 정치사회학적 상상력
- V. 맺음말: 후속 과제를 남겨두며

국문초록

4·3문학이 국민국가의 상상력 한계 내에서 최량(最良)의 문학적 성취를 통해 4·3에 대한 제도적 복권을 일궈내고 있다면, 창조적 갱신이 절실한 4·3문학은 국민국가의 상상력으로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문학적 진실을 래디컬하게 추구해야 할 문학적 과제를 탐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기존 4·3문학이 지닌 문학적 이념과 달리 구미중심의 문자성(literacy)을 중시한 텍스트중심주의(text-centrism)에 치우친 문학적 진실로는 온전히 재현할 수 없는 '구술 증언서사(oral testimony narrative)'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텍스트중심주의의 근대의 문학성에 바탕을 둔 문자적 재현이 함의한 재현적 진실만으로는 국민국가의 상상력 그 주박(呪縛)으로부터 4·3문학이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4·3(문학)의 하위주체가 동아시아의 '탈식민 냉전'에

*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9S1A5A2A03034606).

**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mcritic@daum.net)

대한 저항 주체로서 우리에게 낯익은 문자적 재현과 다른 ‘구연적(口演的, oral performance) 재현’이 함의한 또 다른 재현적 진실을 드러내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 4·3문학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4·3체험 세대의 하위주체의 시선에 주목하되, 국민국가의 상상력을 이루는 문자적 재현의 진실로 온전히 보증할 수 없는 하위주체의 목소리들을 ‘구술 증언서사’의 문제틀로 살펴본다. 그리하여 4·3의 언어절(言語絶)의 참사에 대한 하위주체의 ‘구연적(口演的) 재현’이 지닌 현재성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섬공동체의 남성 부재의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가모장적(家母長的) 공간’을 주도적으로 창출하면서 토착 제의를 수행하는 하위주체의 ‘구연적 진실’이 함의한 저항의 정동을 살펴보았다. 또한 4·3항쟁주체로서 또는 그들에 대한 증언이 4·3항쟁/혁명이 지닌 동아시아 탈식민 냉전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상상력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렇듯이 제2차 세계대전 후 탈식민 냉전 속 동아시아 하위주체의 ‘4·3 증언서사’는 구미중심의 근대 국민국가의 상상력을 넘어 4·3문학의 갱신과 새 지평을 모색하는 데 생산적 공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탈식민 냉전, 동아시아 하위주체, 4·3증언서사, 구연적 재현, 구연적 진실

I. 머리말: 국민국가의 상상력을 넘어서야 할 4·3문학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인 미국과 옛 소련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전지구적 냉전체제는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¹⁾ 무엇보다

1) 신옥희·권현익 엮음, 『글로벌 냉전과 동아시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사실, 한반도의 냉전은 전지구적 냉전의 맥락 속에 있는바, “냉전이 한반도에 이토록 파괴적이었던 데에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원인은 1890년대부터 본격화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일본의 점령 및

제주에서 일어난 '4·3사건'²⁾은 2차 대전 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로 재편되는 가운데 유엔 감독 아래 38도선 이남만을 대상으로 한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민족분단에 대한 민중의 정치적 저항 일 뿐만 아니라 해방공간의 혼돈 속에서 일제 식민주의에 대한 불철저한 역사 청산을 방조하고 심지어 식민주의 권력을 재등용함으로써 냉전체제를 형성하는 새로운 제국의 지배자로 부상한 미국³⁾에 대한 탈식민적 저항을 보인다. 그리고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러한 저항의 도정에서 제주의 민중이 꿈꿨던 근대의 정치적 상상력은 구미중심의 근대 세계에 수렴·흡수·매몰되지 않는, 바꿔 말해 미국식 자본주의 근대도 아니고 소련식 사회주의 근대도 아닌 제주의 섬공동체가 오랫동안 절로 체화하고 있는 '대안의 근대(alternative modern)'를 혁명의 정동(情動, affection)으로 추구했다는 점이다.⁴⁾ 이처럼 '4·3사건'을 2차 대전 후 동아시아의 냉전체제와 관련시켜 살펴보는 것은 4·3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팽배해지고 있는 구미중심의 '탈식민 냉전'에 대한 제주의

식민화가 한반도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원인은 1940년대부터 국제 체제가 냉전 체제로 재편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남과 북의 단독 정부 수립을 지원했다는 사실이다.”(오드 아르네 베스타, 『냉전의 지구사』, 옥창준 옮김, 에코리브르, 2020, 11쪽)

- 2)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는 '4·3사건'이라 호명하고 있다. 물론, 이 호명은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정명(正名)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이 호명을 원칙으로 하되, 필자의 4·3에 대한 학문적 역사적 입장이 지닌 글의 맥락에 따라 이후 달리 호명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 3)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전후 질서의 시각에서 미군정과 미국이 4·3의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 양상을 세밀하게 탐구하고 있는 주요 연구 성과는 허호준, 『4·3, 미국을 묻다』, 도서출판 선인, 2021 및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패권 제국으로 급부상한 미국이 기존 유럽의 구제국주의와 다른 신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대해서는 Walter Lafeber, *The New Empir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참조.
- 4)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건대, 재일조선인 김석범의 대하소설 『화산도』가 거둔 문학적 성취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4·3사건'을 '4·3혁명'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김석범 식 '대안의 근대')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고명철, 「해방공간의 혼돈과 섬의 혁명에 대한 문학적 고투」, 『세계문학, 그 너머』, 소명출판, 2021 및 고명철, 「4·3문학, '대안의 근대'를 찾아」, 『문학의 중력』, 도서출판b, 2021, 157-159쪽.

민중적 저항을 통해 평화적 통일독립의 새 나라 만들기의 정치적 상상력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4·3문학의 새 지평을 모색하는데 생산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4·3문학이 일궈낸 문학⁵⁾ 안팎의 성취는 자못 큰 것이다. 특히 4·3특별법 제정(2000), 고(故)노무현 대통령의 4·3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식적 사죄(2003), 4·3국가추념일 제정(2014), 4·3특별법 전면 개정안 통과(2021), 그리고 최근 제주 4·3생존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2021) 등 대한민국의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4·3사건’은 분명 그 정치적 혐오와 배타성을 일소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4·3 7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민관이 함께 한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단적으로 말해주듯, 4·3은 대한민국의 공식기억(official memory)으로 복권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일련의 제도권적 역사의 인정투쟁에서 4·3문학의 지속적 실천이 보증된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4·3문학에 대한 냉철하고 래디컬한 성찰이 요구된다. 4·3에 대한 예의 제도적 인정투쟁에서 거둔 성취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통치권력 안쪽, 즉 대한민국이란 국민국가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승인된 정치적 복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고 4·3에 연루된 주체들이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정치적 혐오와 극단의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된 이른바 ‘빨갱이’로서 비국민(非國民)의 정치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엄연한 국민으로서 국가 권력의 무참한 폭력에 희생당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잡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국민국가의 통치권력에 의해 이 같은 제도적 복권이 이뤄지는 것에 자칫 자족함으로써 구미중심의 ‘탈식민 냉전’에 대한 4·3항쟁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독립 세상을 염원하는 정치적 상상력을 추구했다는 역사의 진실이 희석화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그동안 4·3문학이 거둔 문학 안팎의 성취

5) 김동윤, 「4·3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3.

와 별개로, 기존 4·3문학이 국민국가의 상상력 한계 내에서만 자족하는 데 대한 준열한 비판적 성찰을 멈출 수 없기에 한층 그렇다. 아울러 이것은 4·3문학의 새 지평을 모색하는 갱신의 노력과 분리할 수 없다. 말하자면, 그동안 4·3문학이 국민국가의 상상력 한계 내에서 최량(最良)의 문학적 성취를 통해 4·3에 대한 제도적 복권을 일궈내고 있다면, 창조적 갱신이 절실한 4·3문학은 국민국가의 상상력으로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문학적 진실을 추구해야 할 문학적 과제를 탐구해야 한다.⁶⁾

우리는 이를 위해 기존 4·3문학이 지닌 문학적 이념과 달리 구미중심의 문자성(literacy)을 중시한 텍스트중심주의(text-centrism)에 치우친 문학적 진실로는 온전히 재현할 수 없는 '구술 증언서사(oral testimony narrative)'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텍스트중심주의의 근대의 문학성에 바탕을 둔 문자적 재현이 함의한 재현적 진실만으로는 국민국가의 상상력⁷⁾ 그 주박(呪縛)으로부터 4·3문학이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4·3(문학)의 하위주체가 동아시아의 '탈식민 냉전'에 대한 저항 주체로서 우리에게 낯익은 문자적 재현과 다른 '구연적(口演的, oral performance) 재현'이 함의한 또 다른 재현적 진실을 드러내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⁸⁾ 따라

6) 이와 관련하여, 재일조선인 문학의 양대 산맥인 김석범의 소설문학과 김시중의 시문학은 특정한 국민국가의 상상력에 구속되지 않듯, '경계의 문학'으로서 국민국가의 상상력을 넘는 4·3문학의 힘을 실현하고 있다.

7) 근대 민족주의의 발흥과 국민국가의 문학적 상상력은 국가적 인쇄 매체의 발명과 보급에 따른 문자중심주의와 매우 긴밀히 접속돼 있다. 가령, 근대 소설은 "“단일하되 다양한' 국민적 삶을 구체화하고, 언어와 스타일들이 분명한 경계를 이루며 뒤범벅으로 섞여 있는 국민의 구조를 모방하면서, 국민의 등장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출현했다. 사회적으로 소설은 국가 인쇄 매체의 주요 수단인 신문과 더불어 언어를 표준화하고, 문해력을 증진시키며,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소설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했다. 소설의 표현 방식은 국민이라는 특별한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게 했다.”(호미 바바, 류승구 옮김, 『국민과 서사』, 후마니타스, 2011, 83쪽)

8) 권현익은 4·3사건이 2차 대전 후 전지구적 냉전체제 아래 일어난, 특히 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탈식민화와 냉전의 맥락 속에서 폭력적 면모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1989년 제주4·3연구소가 펴낸 4·3증언집 『이제사 말함수다』

서 이 글은 기존 4·3문학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4·3체험세대 하위주체의 시선에 주목하되, 국민국가의 상상력을 이루는 문자적 재현의 진실로 온전히 보증할 수 없는, 감춰졌고 멈춰버렸던 심지어 (자의반 타의반) 봉인됐거나 침묵했던 하위주체의 목소리들을 ‘구술 증언서사의 문제틀로 살펴본다.’⁹⁾ 그리하여 동아시아 하위주체의 ‘4·3증언서사가 어떠한 ‘구연적 재현’의 양상을 보이면서 ‘탈식민 냉전’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저항적 삶을 살고 있는지를, 4·3문학의 갱신과 새 지평의 모색 차원에서 살펴본다.

II. 언어절(言語絶)의 참사에 대한 하위주체의 ‘구연적(口演的) 재현’

4·3이 언어절의 무간지옥(無間地獄)이었음은 말 그대로 필설(筆舌)로 다 할 수 없다. 가령, 다음의 증언을 들어보자.

“지금 살아도 헛 사는 사람, 헛 거여”(강숙자)¹⁰⁾

(한울, 1989)가 공식 출간된 것을 계기로 4·3의 비극적 전지구적 역사의 살아 있는 유산이 처음으로 ‘증언’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권현익, 『전쟁과 가족』(정소영 옮김), 창비, 2020, 212-218쪽.

- 9) 그동안 4·3문학의 시계(視界)가 아닌 문화인류학 및 사회학에서는 구술사의 방법론을 통해 4·3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송혜림, 「감정의 재의미화와 기억의 해방」, 『한국민족문화』 70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김성례, 『한국 무교의 문화인류학』, 소나무, 2018; 김유경, 「제주4·3생존자들의 정신적 외상 연구」, 『노인복지연구』 73권 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8; 김은실, 「4·3홀어머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 49권 3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6; 고성만, 「4·3 과거청산과 ‘희생자」, 『탐라문화』 38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1; 유철인, 「구술된 경험읽기: 제주4·3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인류학』 37권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4.
- 10) 제주4·3연구소 편,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도서출판 각, 2019, 31쪽. 이하 본문에서 언급되는 증언자의 실명 여부는 증언집에 명기돼 있는 것

난생 처음 당하는 고통과 공포에 낮이 나가버렸습니다.(송○○)¹¹⁾

난 그런 시절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든 죽어버릴 거야.(송순자)¹²⁾

1938년생 강숙자는 4·3사건 당시 수형인 행불자로서 아버지가 사망 신고 된 이후 그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남편의 호적에 올리지 못하자 내뺀은 푸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남편의 부재도 큰 걱정이지만, 남편의 호적에 등기되지 못함으로써 남편을 에워싼 가부장중심의 혈연 공동체로부터 행여 남은 자식들의 생존을 보호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당시 극한의 처지가 구술 증언에 고스란히 배여들어 있다.¹³⁾ 강숙자의 어머니의 말 속에 단적으로 드러나듯, 4·3사건 때 온갖 유무형의 폭력(국가 폭력과 사적 폭력)의 광기에 압살되는 현실은 가까스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존재들마저 사실상 “헛 사는 사람” 또는 “헛 거”, 즉 허깨비와 다를 바 없는 자기 존재에 대한 허무와 심지어 자기 파괴 및 자기 절멸의 한계 상황에 내몰린 처지와 겹쳐진다(송○○, 송순자).

그런데 우리가 이들 증언에서 예의주시할 대목이 있다. 그동안 4·3 사건에 대한 제주의 수난사적 접근을 통해 제주의 곳곳에서 자행된 언어적 폭력(狂暴) 그 실상을 공식 역사의 수면 위로 꺼내는 도정에서 주목한 이들 증언의 존재와, ‘구연적 재현’이 함의하는 재현적 진실로서 이들 ‘4·3증언서사’의 실재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4·3의 수난사를 입증하는 역사적 실증을 보완 및 구성하는 사료적 가치의

을 그대로 따른다.

11) 문소연, 『늑인』, 4·3도민연대 엮음, 도서출판 각, 2018, 52쪽.

12) 제주4·3연구소 편, 『4·3과 여성2, 그 세월도 이기고 살았어』, 도서출판 각, 2020, 150쪽.

13) 4·3 당시 남편 또는 아들의 부재가 주는 가족공동체의 파괴에 직면하여 이른바 홀어머니 삶의 전방위에서 감당해야 할 것은 이 같은 예외적 한계 상황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가부장중심의 억압과 이를 현실적으로 기민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억척 여성으로서 젠더적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성학 연구자 김은실은 이것을, “4·3의 공적 담론은 제도적이고 남성적이다.”(김은실, 위의 글, 327쪽)고 모파한다.

성격이 중요하다면, 후자에서는 ‘구연적 재현’을 4·3사건의 피해 당사자로서 하위주체의 언어(여기에는 입말을 이루는 언어의 분절적 표현뿐만 아니라 웅얼거림, 표정, 몸짓, 한숨, 침묵 등 각종 비분절적 언어의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형식의 언어, 그리고 은연 중 툭 터져 나오는 노래 등)를 직접 표현하는 연행성(演行性)에 주목함으로써 하위주체 스스로 4·3의 수난사를 응시하면서 그것을 자기 존재의 현존으로 재구성하는,¹⁴⁾ 그리하여 과거사를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당시 불가항력적이라고 체념해버린 그 과거사가 깊게 남긴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인간의 자기 존엄을 발견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4·3증언서사’의 ‘구연적 재현’에 하위주체가 직접 동참하는 것은 언어절의 광폭에 짓눌렸던 존재로부터 그 언어절의 폭압을 자기의 ‘구연적 재현’의 작업 속에서 대상화 및 객관화함으로써 폭압의 과거사와 그 트라우마로부터 비로소 해방되는 정동의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4·3증언서사’에서 꿈꾸기 형식을 빌린 ‘구연적 재현’이다.

동척회사에서 풀려나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병생이 언니 신체를 찾으러 갔어. 아기와 같이 총에 맞아 죽어있는 언니를 가문다리에 잘 묻어두고, 우리는 소식 없는 큰오라방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어. **내가 12살 쯤 됐을 무렵, 하루는 꿈에 병생이 언니가 찾아온 거야.** 아기를 안고 우리 집 입구에 서서 “어머니”하고 불러. “아이고 언니, 어떻게 왔어?” 반가운 마음에 뛰어나갔더니 언니는 그냥 웃기만해. “이제 얘기 걸을 수 있어?” 가문다리에서 죽은 둘째 조카는 걷지도 못하는 물애기였거든. 언니가 얘기

14) 각주9)에서 4·3에 대한 구술 서사의 주요 연구 성과들 중 김성례는 제주의 무교(굿과 무속 신화)와 구술사의 방법론적 고찰을 논의하는데, 여성주의 구술사에 대한 외국연구자의 “과거 경험의 기록인 생애사와 달리 생애 이야기는 자기 경험의 표현으로서 여성 구술자의 주체성이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창작물의 성격을 갖는다.”(Patai, Daphne, *Brazilian Women Speak: Contemporary Life Stories*,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88, p.8; 김성례, 위의 책, 278쪽 재인용)는 점을 주목함으로써 이 글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4·3증언서사’를 ‘구연적 재현’의 재현적 진실을 추구하는 4·3문학의 문제의식으로 살펴보는 데 학문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를 마루에 내려놓자 내가 쓰지도 못하는 왼손으로 탁탁탁탁 박수를 치면서 “이레 오라. 이레 오라” 조카를 불렀어. 애기가 봉삭봉삭 웃으며 걸어오더니 내 품에 푹 안기는 거야. “나 이제 갈게. 애기 이레 주라” 그리곤 내가 17살쯤 됐을 때 우리 어머니 꿈에 언니가 다시 한번 찾아왔어. “어머니, 우리 근호 열네 살 되면 나 호꿈 옮겨서 천리해줍서”, “아이고 기여, 나 해주마” 우리 어머니, 깜짝 놀라 꿈에서 깬다는 거야. 다음 해가 우리 큰조카 근호가 14살 되는 해였거든. 우린 가문다리에 묻어뒀던 병생이 언니 천리를 해다 회천에 다시 묻었어. 그리곤 지금까지 한 번도 꿈에 찾아오지 않는 걸 보면, 이제 편안하신 거겠지?(강순덕; **밑줄 강조**-인용, 이하 동일)¹⁵⁾

강순덕의 증언은 제주시 봉개동에 자리한 4·3평화공원의 상징 조형물인 모녀상과 관련돼 있다. 강순덕은 자신이 12살 때 꾸곤 꿈과 17살 때 어머니가 꿰던 꿈 두 사례를 들려주는데, 어제 꾸곤 꿈인 듯 아주 상세히 꿈의 장면 하나하나를 실감있게 재현한다. 두 살배기 딸과 함께 토벌대의 총에 맞아 죽은 강순덕의 올케 병생이 언니가 꿈 속에서 “걷지도 못하는 물애기”를 살아 있는 가족에게 맡긴다. 그리고 어린 강순덕은 4·3 당시 머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왼쪽 팔을 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탁탁탁탁 박수를 치면서” 그 어린 조카를 따스한 품으로 안는다. 분명, 4·3 당시 병생 언니와 갓난 조카는 함께 총에 맞아 죽었고, 봉개동 가문다리에 잘 묻어두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강순덕의 꿈에서 그들은 살아 있는 양 만났을 뿐만 아니라 조카에게 투박한 박수를 치는 사랑의 몸짓 신호-박수의 소리를 ‘ 짹짹’이 아닌 ‘탁탁탁탁’하는 음성상징어로 재현하고 있는 것을, 장애를 지닌 하위주체의 비언어적 표현이란 점에서 주시-를 보내더니 조카가 품에 안겨든다.

이 첫 번째 꿈의 재현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선 비통하게 죽은 병생 언니와 갓난 애의 원한을 해원(解冤)하고자 하는 산 자의 절실한 염원인바, 그래서 꿈속에서나마 병생 언니와 갓난 애는 죽은 자의 모습

15) 조정희, 「꿈 속에 찾아온 병생 언니, “이제 갈게. 우리 아기 주라”」, 『4·3과 평화』 39호, 제주4·3평화재단, 2020년 5월호, 59쪽.

이 아니라 생생히 산 자의 모습으로 현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3 시기 손상된 왼손을 애써 이용하여 사랑의 몸짓을 통해 조카가 강순덕의 품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비록 4·3의 외상을 입었지만 죽은 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음으로써 죽은 자와 산 자가 분리·고립·단절된 채 4·3의 상처가 영원히 응어리져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4·3의 하위주체들(갓난 애와 어린 장애 여성)이 스스로 그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는 길을 꿈속에서 내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런 후 강순덕의 17살 때 그의 어머니 꿈속에서 병생이 언니는 이제 진토가 된 당신의 유골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대로 실현한 후 다시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둘째 꿈을 통해 병생 언니의 해원은 이뤄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꿈의 실제 과학성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강순덕이 들려주는 증언이 꿈의 형식을 빌려 4·3의 언어절의 수난사에 압도당하지 않고, 다시 말해 당시 십대의 장애 여성이 언제까지나 과거의 수난에 짓눌린 채 그것을 외면하든지 공식 역사에서 왜상(歪像)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병생 언니와 조카를 에워싸고 있는 죽음정치(necropolitics)에 대한 저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¹⁶⁾ 무엇보다 이 저항이 한층 소중한 것은 백발이

16) 이와 관련하여, 『4·3과 여성2, 그 세월도 이기고 살았어』에 채록된 ‘4·3증언서사의 또 다른 꿈의 사례를 보면, 화북으로 피난할 무렵 아버지의 소식을 모르던 어린 여자애가 아버지를 꿈에서 만났는데, 그 아버지는 배가 몹시 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재촉하는 꿈을 꿔다. 꿈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점쟁이를 찾아가더니 남편이 어느 냇가에서 죽었다는 점술을 들은바, 실제로 남편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송순자의 증언, 같은 책, 157쪽). 그런가 하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제주시 산지포구 동부두 가장 동쪽 끝으로 들어가다가 택시 뒷좌석을 보니 아버지가 사라졌는데, 택시에서 내린 순간 사라졌던 아버지가 집채만한 파도에 쓸려 가버리는 꿈을 꿔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4·3수형인 행불자로서 한국전쟁 무렵 바다에서 수장(水葬)된 것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처를 이렇게 달래기도 한다(정봉영의 증언, 같은 책, 26-27쪽). 이들 ‘4·3증언서사’의 구체적 서사의 전개는 다르지만, 4·3 당시 광폭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망자는 꿈속에서 살아 있는 가족과 일상의 모습으로 만나고 헤어지면서 산 자는 망자의 해원 의식을 치르면서 망자와 친밀한 관계의 복원을, 바로 ‘구연적 재현’의 도정에서 발견한 재현적 진실의 힘으로 수행한다.

성성한 1940년생 강순덕이 하위주체로서 '4·3증언서사'를 바로 '구연적 재현'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재성이다. 단순히 꿈을 타자에게 들려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전달해주는 입말과 그 입말들 사이에 구사되는 장애인 하위주체의 신체성으로 표현되는 비언어적 표현과 그에 부합하는 음성상징어,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소통을 표현하는 대화체의 생동감 등이 지닌 현재성이야말로 '4·3증언서사'가 사료적 가치는 물론, 이것을 아울러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문학적 진실을 추구하는 노력이 국민국가의 상상력으로 기념화 및 제의화하는 데 자족하는 게 아니라 국민국가의 상상력으로 온전히 보증할 수 없는 하위주체의 재현적 진실을 촘촘히 창조적으로 재구(再構)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4·3사건의 하위주체가 재현하는 '4·3증언서사'는 '구연적 재현'을 통해 언어절의 무간지옥에 대한 창조적 저항의 현재성을 수행하고 있다.

Ⅲ. 하위주체의 '구연적(口演的) 진실'과 저항의 정동

4·3의 하위주체가 '구연적 재현'을 하는 가운데 자주 상기하고 힘주어 강조하곤 하는 대목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언어절의 무간도의 지옥 속에서도 하위주체로서 여성은 토착 제의인 제사와 굿을 수행하면서 4·3의 예외적 한계 상황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견뎌나갔던 것이다. 이 토착 제의를 수행하는 것은 4·3 당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4·3사건으로 인해 1957년 한라산 금족령이 풀린 후에도 4·3의 하위주체들은 그 무간도의 지옥에 대한 창조적 저항의 현재성을 수행하는 그들만의 오래된 미래의 방식으로 토착 제의를 수행한다.

일제 시대 '당오백 절오백'이라고 해서 팽나무에 못가게 하니까 송당 사람들은 심방(무당)집을 다녔어. 4·3사건이 나니까 이젠 그 당 오름을 아예

가지 못한다고 하니, 심방집에서만 대접을 하다가, 그때가 김찬호 아버지가 이장할 때라. 육지 토벌대 대장이 와서 “이장님, 나가 이상한 꿈을 봐 수다.”고 해. “어떤 꿈을 봤느냐”고 하니까 막 하얀 할머니가 딱 치마를 벌리고 서서서는 폭도들 오는데 “마조신들 한틴 절대 못 들어, 너네 들민 다 죽여볼꺼!”(마조신들한테는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들 들어오면 다 죽는다)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폭도가 오다가 돌아가는 꿈을 꾸 거라. 그 토벌대 대장이 와서 꿈에 본 걸 눈에 보듯이 말하면서 “나 꿈 어떻습니까?” 하니까, 찬호 아버지가 “옛날부터 송당 본향당은 할머니 당”이라고 말하면서 그 당 내력을 짚 말해준거라. “여기 이러이러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잘 대접하세요” 하니까 한 번 심방집에 가서 대접을 해보고 그 토벌대 대장이 너무 신기해 했덴. 그러더니, 토벌대 대장이 “아이고, 거기 가서 굶을 하십시오!” 그때부터는 본향당에 가서 굶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줬어. 4·3 때인데도 본향당에 가서 굶을 한 거라.

그래서 송당은 폭도도 안 들고 넘어간 거라. 송당은 폭도 습격이 들지 않았주게. 송당 사람들은 본향당 할머니를 서운하게 하지 않으니까 마을에 폭도도 안 들었다고 민주게.(채계추)¹⁷⁾

“항아리 밑에 돌을 들러봐라” 결국 이 말씀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들과 함께 항아리를 들춰보니, 돌 밑에 사락사락한 종이꾸러미가 하나 나와요. 펼쳐보니 돈이 들어 있었어요. 꾸러미 안에 축축하게 젖어있는 돈을 꺼내 며칠 말렸어요. 행여나 누가 볼까봐 작은 동생은 밖에 세우고 큰 동생은 안에 세우고, 솔뚜껑 위에 돈을 펼쳐놓고 불을 피워 말린 거예요. 솔뚜껑에 두어 번 말릴 정도면, 그 돈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래도 그 돈을 아껴서 아버지 대소상을 치루고 동생들과 함께 꿩마늘, 냉이를 캐다 판 돈으로 곤쌀 받아다 아버지 삭제며, 일 년에 네 번씩 제사 명절도 지내며 살아온 거예요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항아리 밑에 남겨준 그 돈이 씨앗돈이 되어 남편 없이 혼자서 밭도 사고, 애들도 키우며 오늘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내 수중에는 아버지가 남겨준 항아리 씨앗돈처럼, 절대 쓰지 않는 씨돈이 들어 있어요.(양농옥)¹⁸⁾

위 ‘4·3증언서사’는 문자적 재현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구연

17) 제주4·3연구소 편,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241-242쪽.

18) 조정희, 「4·3과 증언」, 『4·3과 평화』 31호, 제주4·3평화재단, 2018년 5월호, 85쪽.

적(口演的) 진실'을 들려준다. 제주의 대지모신(大地母神)을 모시는 송당 본향당의 곳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토벌대 대장에 관한 구술과(채계추), 4·3 당시 집단 학살터로 이송당하는 아버지에게 말을 듣고 아버지가 남긴 돈을 씨앗돈으로 하여 아버지 원혼을 위무하고 추도하는 일련의 제의(대소상, 삭제, 제사 명절)를 지내며 살아온 삶의 내력에 관한 구술(양농옥)에는, 표면상 당시 역사의 광풍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대신, 참혹한 어려운 시기를 여성 하위주체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할 따름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시할 '구연적 진실'이 그들의 말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4·3 당시 국가권력을 참칭하는 토벌대가 4·3혁명을 무차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그래서 한라산 중산간 부락(송당 마을도 해당)의 원주민을 대한민국의 비국민(非國民)으로 배제하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폭력이 자행되었음을 상기할 때, 송당 본향당의 곳이 4·3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연행되고 있다는 것은 송당이란 한 마을을 지켜냈고 송당의 신격(神格)과 그 제의를 무사히 보전하고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적성(赤城敵城) 지대로 간주된 중산간 부락이 국민국가의 근대적 폭력으로 결코 완전히 소멸될 수 없다는 섬공동체의 삶의 욕망과 의지를 드러낸다.¹⁹⁾ 그리고 제주의 대지모신을 토착 제의의 위력으로써 근대적 폭력을 저지했다는 것은 4·3혁명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국민국가의 근대적 폭력에 패배했지만 그 미완의 혁명이 지닌 가치가 섬공동체의 일상 속에 시나브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섬공동체의 일상이 비단 곳 외에도 다른 토착 제의(대소상, 삭제, 제사, 명절 차례)와 함께 여성 하위주체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근대의 국민국가가 가부장중심의 남성 질서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제주의 여성 하위주체들은 이 근대

19) 필자는 제주의 토착 제의인 곳이 지닌 정치사회학적 상상력을, 제주문학의 '구술적 연행'으로 구현하면서 '굿시' 및 '굿시론'이라는 독창적 시학을 정립하는 문무병의 시문학을 주목한다. 고명철, 「제주문학의 글로컬리티, 그 미적 정치성」, 『세계문학, 그 너머』, 552-557쪽.

가부장중심의 남성 질서를 답습 및 판박이하는 데 있지 않고 남자가 부재한 것을 대신하여 ‘가모장적(家母長的, matriarchal) 공간’²⁰⁾을 주도적으로 창출하고 그에 부합하는 토착 제의를 수행한다. 이것은 가부장 중심의 남성 질서에 순응하고 이를 재현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보다 근대의 폭력에 섬공동체의 바탕과 근간이 절멸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제주 섬공동체의 여성 하위주체로서 저항의 정동²¹⁾이 예의 토착 제의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온당하다.

사실, 여성 하위주체가 토착 제의를 수행하는 저항의 정동이 ‘4·3증언서사의 ‘구연적 재현’이 함의한 예의 ‘구연적 진실’에 맞닿아 있다면, 또 다른 저항의 정동으로서 구술하는 가운데 절로 떠올라 삽입되는 노래와 연관된 ‘구연적 상상력’이 수반하는 ‘구연적 진실’의 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 연락을 받아 한 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머니도 가고 언니들도 가뵈고 동네가 왈각 갔어. 짚신을 끈으로 묶으면서 제주시 북초등학교까지 걸어서 가는 거라. 아이들은 동네에서 “우리는 싸웠다, 3·1운동에” 어찌구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니고

그날 갑산집 며느리(박재옥 씨)가 꺾기대회 갔다가 죽었어. 마을에서 인민장을 크게 했어. 도두리서 행상 나갈 때는 중동마을에 노래 잘하는 여자가 선소리 하면서 상여 나가는 거를 아이들과 구경했던 생각이 나. 동네 사라들이 애석해하던 표정들이 선해. 그후 민밋(줄줄이) 죽는 일이 있어지 마는 그제 첫 일이니까 기억이 선명하지. (중략)

내 생각에는 꼭 그때부터 불상사가 난 것 같아. 그때 달구노래도 들어진 것 닮아. 달구노래는 산 터 다지는 노래지. “어허 달구~”하면서 봉분이 무너너지 않게 잘 다져야 하는 거니까, 이제는 늬(인부)빌어서 하면 영성하

20) 김성례, 위의 책, 281쪽.

21) 이와 관련하여, 제주 해녀의 항일투쟁(1931~1932)은 일제 식민주의 지배에 대한 항일투쟁사에서 여성의 집단화된 조직투쟁을 전개했듯, “해방 후 3·1사건과 4·3항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저항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박찬식, 「제주해녀투쟁의 역사적 기억」, 『해녀연구총서 3』, 이성훈 편, 학교방, 2014, 485쪽)로 주목된다. 따라서 위 증언서사에서 보이는 여성 하위주체로서 저항의 정동은 4·3 시기에 갑자기 돌출한 게 아닌 제주 여성의 근대적 저항의 맥락으로 살펴야 한다.

게 수왈수왈해서 무덤이 납작보말(고동)이 되어 버리고. 하지만 이젠 그런 일을 어떻게 직접 해? 누가 해?(김연삼)²²⁾

1948년 4·3항쟁이 일어나기 전 1947년 3·1기념식에 참석한 11살의 여자에는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는데, 주목할 것은 항쟁의 노래, 상여 선소리, 달구노래 등속과 함께 그날의 사건을 구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4·3항쟁을 촉발시킨 3·1기념식의 장면을, 여성 하위주체는 그 당시 불렀던 항쟁의 노랫말(“우리는 싸웠다, 3·1운동에”)을 생동감 있게 재현하고, 그 기념식에서 비운의 죽음을 맞은 마을 부녀자(박재옥 씨)의 장례식 장면은 상여 선소리를 통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위 구술의 정황상 박재옥 씨의 무덤 봉분을 다지는 달구노래의 노랫말(“어허 달구~”)을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린다. 비록 위 세 노래(노랫말)가 서로 어떤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언자의 개별 경험의 과거 속 파편처럼 산재해있던 4·3항쟁 이전의 일들이 노래와 관련하여, 노래가 절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연행성(演行性)이 과거 속 파편의 개별 경험과 연관된 정치사회적 맥락을 재구(再構)하도록 하는바, 이것은 개별 경험의 경계를 넘어 섬공동체의 역사문화적 정동에 교응하는 셈이다. 바로 이 같은 ‘구연적 재현’이 여성 하위주체의 ‘구연적 상상력’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4·3항쟁이 또래 어린애들과 부녀자와 같은 하위주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섬공동체의 저항의 정동을 나눠갖고 있는,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의 강제된 정치사회적 문제의식과 다른 4·3항쟁/혁명의 그것을 추구하는 ‘구연적 진실’을 간과해서 곤란하다.²³⁾

22) 제주4·3연구소 편,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72쪽.

23) 가령, 다음과 같은 ‘구연적 재현’은 4·3항쟁의 정치사회적 상상력을 숙고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깃발을 덮어오다 붉은 깃발을/그 밑에서 전사를 맹세한 깃발//무명지 깨물어서/붉은 피를 흘려서//태극기 걸어놓고/천세 만세 부른다//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어머니 친구가 집에 왔다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무사(왜) 이런 노래 불렀시니(부르니), 이런 노래 부르민 심어간대(잡아간다), 그런 노래 부르지 말라.” 아이들에게 야단쳤는데 그때가 사태나기 직전인

IV. 동아시아의 탈식민 냉전에 대한 하위주체의 정치사회학적 상상력

하위주체의 '4·3증언서사' 중 4·3항쟁에 직접 연絡병으로서 참여한 여성 항쟁주체의 다음과 같은 목소리는 탈식민 냉전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상상력을 드러낸다. 조금 길지만, 그 목소리를 경청해본다.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는 안 된다고만 했어.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 제주도에서 일으켜 될 일이 아니라고, 항시 자제하고 있어야 했지.

집에서 회의할 때면 올레 입구 팽나무에서부터 망을 보고 문 앞에 딱 풍채(차양)를 세워. 나는 창문 앞의 풍채를 만지는 척하며 엿듣지. 그때 우리 집에 이덕구도 다녔던 것 같고 오라리 허○○란 사람은 권총차고 긴장화 신고 다녔어. 아버지에게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 (중략) 우리 아버지는 국제 정세까지 알기는 다 알았지만 절대 안 받아들였고, ㉡우리 조선은 연합국이 독립시킬 때 북은 소련이 가지고 남은 미국이 가지게 다 계획이 있는 일이다. 이거 뭐 이제 난(일어난) 일이 아니다, 일본 놈에게는 벗어났지만은 이제는 미국 속에 들어가는 거다, 나라는 두 동강이 나게 돼 있다 하셨어. 산 쪽에서 사람이 오면 “나는 그런데 받을 들일 입장이 못 된다.”고 하며 활동은 안 해봤어. 혀를 찡찡 하며 대륙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거 될 일이 아닌데 제주도 사람들이 나선다고 했지. 박헌영이가 제주도 운영을 많이 했지.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사상이란 걸 많이 얘기해줬어. 일본에서 전쟁을 할 때 원자폭탄을 터트리 우리나라 독립을 시키면 북쪽은 소련 줄 거고 남쪽은 미국이 가질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때는 6·25 전이라 갈려지지 않은 건데, ㉢갈라지지 못하게 김구 선생을 잡아야 그래도 통일이 될 건데 미국에서 이승만을 잡아다 맡긴 거야.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한 것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했지. 이승만은 절대 남과 북을 갈라놓을 거다. 그래서 5·10선거를 반대한 거 아닌가? 그렇게 갈라놓고 70년을 흘려놓았어.

㉣나는 남북통일이라는 걸 진짜 원해. 아직은 의복도 같고 언어도 같고 뭣 때문에 갈라놔? ㉤왜 통일하자는 걸 빨갱이라고 해? 원인은 머리들 싸

것 같아.”(김연심, 앞의 책, 73쪽)

움이고 나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갈라났다고 봐. 박정희 얘기는 일본에서 들었어. 그 사람 야비한 사람이야. 일본 군인이었어. 그래서 조선 피를 많이 먹은 사람인데 또 조선으로 와서 권력 잡고 해 먹은 거야. 북쪽은 소련이 점령했지만 그 쪽은 소련을 떼어냈잖아. 여기는 그냥 미국을 끌어안고 있으니 박정희가 16년이나 해 먹게 된 거잖아. **㉠아직까지 난 이런 말을 못하고 살았어.** 박정희라면 치가 떨려.(양농옥)²⁴⁾

위 증언에서 우리는 ㉠~㉢를 중심으로 여성 항쟁주체가 4·3항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헤아려볼 수 있다. 우선, 주목할 것은 이 항쟁주체의 4·3항쟁에 대한 정세 파악과 그 정치사회적 상상력의 뿌리에는 아버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아버지는 구술자의 다른 증언을 참조할 때 일제 식민시기 고향을 떠나 일본에 가서 공장을 운영하며 조국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고향으로 귀국하였는데 4·3항쟁이 일어난 해 집단 학살을 당하였다.²⁵⁾ ㉠,㉡,㉢에서 확연히 알 수 있듯, 구술자의 아버지는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망하는 전후의 국제 정세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바,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드리우기 시작한 미국과 옛 소련 중심의 냉전체제의 징후 속에서 민족분단이 이들 제국의 패권에 의해 현실화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민족분단에 대한 래디컬한 저항으로 한반도의 남과 북의 정세와 동아시아를 에워싼 냉전체제에 대한 주도면밀한 이해와 전략적 접근 없이 자칫 섬공동체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민중봉기를 적극화하는 남로당 제주도당(濟州島黨) 항쟁 지도부의 혁명적 모험주의를 경계하기도 한다(㉠)²⁶⁾. 그러면서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은 해방공간 당시 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북협상과의 정치사회적 움직임을 중시한다(㉢).²⁷⁾

24) 제주4·3연구소 편, 『4·3과 여성2, 그 세월도 이기고 살았어』, 104-105쪽.

25) 이에 대해서는 각주17)에서 인용한 증언에서 자세히 살폈다.

26) 4·3항쟁을 남로당 제주도당의 관점에서 연구한 양정심에 따르면, 4·3항쟁의 근간을 이루는 통일독립 민족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정치적 테제와 별도로, 1948년 4·3항쟁 전후의 남과 북의 급박한 정세를 염두에 둘 때, 제주도당 항쟁 지도부의 무장투쟁을 주도한 신진세력들이 가진 대내외적 정세에 대한 낙관론과 오관이 초래한 혁명적 모험주의는 너무나 안일한 것이었다. 양정심, 『제주4·3항쟁』, 도서출판 선인, 2008, 85-93쪽.

여기서, 여성 하위주체의 여러 ‘4·3증언서사’ 중 4·3항쟁을 동아시아의 냉전체제와 국제 정세 및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의 동향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이것은 구술자의 아버지가 보인 정치사회적 입장으로 구술자의 입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증언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도당(島黨) 내부에서 4·3항쟁에 대한 혁명적 모험을 적극화하는 항쟁 지도부에 대해 이것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 김구가 함의하는 남북협상을 통한 평화적 통일독립에 대한 정치적 기대를 가졌다는 사실이 여성 하위주체의 구술로 표면화된 것이다. 그리하여 구술자는 조국의 평화통일(㉔), ㉕)을 담대하게 표방한다. 한국사회에서 평화통일을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구술자가 남로당 제주도당원으로서 4·3항쟁주체였다는 점과 이를 에워싼 정치사회적 맥락(㉖, ㉗, ㉘) 때문에 “㉙아직까지 난 이런 말을 못하고 살았어.”가 증언하듯, 그는 자기 검열 속에서 침묵해온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4·3항쟁주체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구술이 있다. 4·3항쟁을 전위에서 이끌었던 도당(島黨) 인민유격대 총책 이덕구(1920~1949)의 살아남은 가족 중 그의 외조카 강실²⁸⁾이 이덕구의 죽음과 연관한 생생한 증언이다.

27) 사실, 이 대목은 위에 인용된 구술만으로는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 다만, ㉖과 ㉗을 종합해서 그 구술의 맥락을 당시 국내외 정세와 연관시켜 이해할 때, 제주도당의 신진세력에게는 밀렸지만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달리 말해 김구로 대변되는 평화적 통일독립을 위한 남북협상과를 지지하는 세력도 제주도당 내부에 존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위 ‘4·3증언서사’의 중요성을 방증하지 않을까. 4·3의 평화적 통일독립과 남북협상에 대한 논의는 최근 발표한 김재용의 「4·3과 남북협상의 평화적 통일독립」, 『김석범X김시중: 4·3항쟁과 평화적 통일독립』(고명철 외 4인 공저), 보고서, 2021을 참조.

28) 이덕구의 누나 이태순의 아들 강실(1938~2015)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해방 전에 귀국하여 그의 외삼촌 이덕구를 가깝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다시 일본으로 밀항하여 자수성가를 했고 재일본제주4·3유족회 회장을 맡아 재일조선인으로서 4·3혁명의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분투하였다. 강실을 비롯한 이덕구 유가족이 들려주는 ‘4·3증언서사’에 대해서는 김정훈, 「이덕구 가족으로 살아남기」, 『돌아보면 그가 있었네』, 제주작가회의 편, 2017, 250-313쪽 참조.

나는 관덕정 앞에 전시된 덕구 외삼촌 시체 주위를 하루 종일 친구와 왔다 갔다 하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시체를 보는데 한 사람도 화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 빨갱이, 잘 죽었구나!’라는 사람도 없었고요. **모두 칙올한 표정으로 머리를 숙이고 예를 갖추고 지나갔지요**. 시체가 있던 곳에서 10미터 정도 가면 전신주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주머니들이 합장하고 있는 걸 보기도 했어요.

시신은 하루 동안만 전시됐어요. 장마철인데 아침부터 매달아놓았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는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남수각에서 시신을 화장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뼈라도 수습하라.”고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뼈를 담은 항아리를 준비해서 그곳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전날 내린 비로 거기는 강이 되어 있었지요. **뼈건 뭉건 전부 다 태평양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고, 너는 정말로 깨끗하게 가버렸구나!”라고 탄식하며 오열하셨지요.(강실)²⁹⁾

인민유격대 대장 이덕구의 시신이 내걸린 관덕정 주변에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비교적 차분히 애도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빨갱이’로 매도된 채 국가권력에 의해 비운의 죽음을 맞은 혁명가의 시신을 제주 민중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는가 하는 점이 강실의 증언을 통해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위 구술에서 가볍게 흘릴 수 없는 것은,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것을 두고, “뼈건 뭉건 전부 다 태평양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란 허탈한 낫두리가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져서 시신마저 수습하지 못한 채 이렇다 할 장례도 치르지 못한 허망함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혁명가 이덕구와 항쟁주체들이 못다 이룬 4·3혁명의 원대한 꿈-구미중심의 근대를 바탕으로 한 민족분단의 개별 국민국가가 아닌, 즉 2차 대전 후 전지구적 냉전체제에 적응하는 분단국가가 아니라 식민주의의 완전한 극복 속에서 평화적 통일독립을 이룩한 나라세우기와 관련하여 ‘대안의 근대’를 창출하고자 한 미완의 혁명이 바다의 흐름처럼 계속 흘러가기를 산 자들이 염원하고 있는 문학적 상상력과 포개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29) 박경훈, 『돌아보면 그가 있었네』, 제주작가회의 편, 도서출판 각, 2017, 287-288쪽.

표면상 이덕구의 죽음을 증언한 것 이상의 4·3혁명의 과제가 4·3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태평양으로 흘러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시계(視界)로 4·3혁명의 과제 해결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화된다.³⁰⁾

V. 맺음말: 후속 과제를 남겨두며

이 글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4·3문학의 갱신을 위한 새 지평을 모색하기 위해 구미중심주의 근대를 표현하는 문자성 위주의 문자적 재현에 바탕을 이루는 텍스트중심의 문학성과 다른 구술성을 중시한 ‘구연적 재현’을 해내는 하위주체의 ‘4·3증언서사’에 초점을 맞춰 그것의 ‘구연적 진실’을 살펴보았다. 이 글의 결정적 한계로, 보다 다층적 삶을 고려한 하위주체들의 풍부한 ‘4·3증언서사’를 구술사(口述史/事)의 과학적 접근으로 궁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앞선 나머지 예의 방법론을 숙련하지 못한 필자의 능력의 부족함을 절실히 체감한다. 추후 구술사에 대한 문화인류학 및 사회학의 접근을 문학적으로 적극 섭취함으로써 4·3의 하위주체의 구술을 ‘4·3증언서사’의 시계(視界)로 한층 진전시킬 것을 기약해본다. 이와 관련하여,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서 독자적 영역을 누리고 있는 ‘증언문학’과 비교문화적 탐구가 요구된다.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서 원주민 하위주체의 객관현실을 ‘증언’으로서 재현하는 작업이 기존 서구의 낯익은 문자성 위주의

30) 이 같은 노력이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가열차게 실천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구마 에이지·강상중 편, 『재일 1세의 기억』(고민정·고경순 역), 도서출판 문, 2008에 실린 또 다른 ‘4·3증언서사’에서 만날 수 있다. 이들 재일조선인의 ‘4·3증언서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탈식민주의는 물론, 2차 대전 후 형성된 전지구적 냉전체제 아래 미일 안보체제와 무관할 수 없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에 대한 ‘비판적 주체(critical subject)’의 몫을 수행하면서, 분단체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현적 진실과 크게 다른 심급의 재현적 진실을 추구하는, 달리 말해 사회와 제도의 주변부에 존재론적 기반을 이루는 하위주체들이 인종, 종족, 젠더, 종교, 계급 등의 차별과 배제를 증언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상상력으로는 온전히 재현할 수 없는 것들을 구술성에 착목하여, '증언 장르'의 새 지평을 이룩했다는 것³¹⁾은 필자가 이후 궁리할 '증언서사'의 '구연적 재현'을 통한 '구연적 진실'에 생산적 토의를 제공해준다.

끝으로, 문학적 차원에서 4·3의 하위주체의 '4·3증언서사'를 살펴 보면서 아쉽고 안타까웠던 것은 구술자의 증언이 표준어를 중심으로 채록·표기되고 있는바, 표준어로 표기될 경우 표준어가 미치는 문자성의 파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듯, 표준어와 근대 국민국가의 상상력 사이의 인력(引力)이 강해 '4·3증언서사' 자체뿐만 아니라 4·3의 하위주체를 구미중심의 근대 국민국가의 상상력으로 구속한 가운데 정작 '증언서사'로서 문학적 진실, 즉 '구연적 진실'의 힘을 약화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어 중심의 문자성 위주의 표기를 지양하여 하위주체의 생동감 있는 정동의 구술성을 표기하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자면, 증언자가 구술하는 가운데 수반하는 아주 사소한 '구연적 재현'도 놓치지 않고 구술 속에 표현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논의했듯, 구술자의 '구연적 재현'에는 (비)언어적 표현을 망라한 재현이 모두 소중한바, 특히 하위주체에게 이러한 '구연적 재현'은 필설로 다 할 수 없든지 아예 필설이 허락되지 않는 예외적 한계 상황을 하위주체만의 방식으로 '구연적 진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인류학 및 사회학의 접근과 달리 (비)언어적 표현을 거느린 문학으로서 '구연적 상상력'에 미치는 구술성의 몫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한다.

31)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증언문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풍부한 논의는 우석균·조혜진·호르헤 포르넷 엮음, 『역사를 살았던 쿠바: 우리 아메리카, 아프리카쿠바, (네오)바로크, 증언 서사』, 글누림, 2018 및 존 베벌리, 『하위주체성과 재현』(박정원 옮김), 그린비출판사, 2013 참조.

참고문헌

- 4·3도민연대 엮음, 『늑인』, 도서출판 각, 2018.
- 고명철, 『세계문학, 그 너머』, 소명출판, 2021.
- _____, 「4·3문학, ‘대안의 근대’를 찾아」, 『문학의 중력』, 도서출판b, 2021.
- 고성만, 「4·3 과거청산과 ‘희생자」, 『탐라문화』 38호, 제주대 탐라문화 연구소, 2011.
- 권현익, 『전쟁과 가족』, 정소영 옮김, 창비, 2020.
- 김경훈, 「이덕구 가족으로 살아남기」, 『돌아보면 그가 있었네』, 제주작가회의 편, 2017.
- 김동윤, 「4·3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3.
- 김성례, 『한국 무교의 문화인류학』, 소나무, 2018.
- 김유경, 「제주4·3생존자들의 정신적 외상 연구」, 『노인복지연구』 73권 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8.
- 김은실, 「4·3홀어머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 49권 3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6.
- 김재용, 「4·3과 남북협상의 평화적 통일독립」, 『김석범X김시중 : 4·3항쟁과 평화적 통일독립』 (고명철 외 4인 공저), 보고서, 2021.
- 박찬식, 「제주해녀투쟁의 역사적 기억」, 『해녀연구총서 3』, 이성훈 편, 학교방, 2014.
- 송혜림, 「감정의 재의미화와 기억의 해방」, 『한국민족문화』 70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 신윅희·권현익 엮음, 『글로벌 냉전과 동아시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양정심, 『제주4·3항쟁』, 도서출판 선인, 2008.
- 오구마 에이지·강상중 편, 『재일 1세의 기억』, 고민정·고경순 역, 도서출판 문, 2008.
- 오드 아르네 베스타, 『냉전의 지구사』, 옥창준 옮김, 에코리브르, 2020.

- 우석균·조혜진·호르헤 포르넷 엮음, 『역사를 살았던 쿠바: 우리 아메리카, 아프로쿠바, (네오) 바로크, 증언 서사』, 글누림, 2018.
- 유철인, 「구술된 경험읽기 : 제주4·3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인류학』 37권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4.
- 제주4·3연구소 편,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도서출판 각, 2019.
- _____, 『4·3과 여성2, 그 세월도 이기고 살았어』, 도서출판 각, 2020.
- 조정희, 「4·3과 증언」, 『4·3과 평화』 31호, 제주4·3평화재단, 2018년 5월호
- _____, 「꿈 속에 찾아온 병생 언니, “이제 갈게. 우리 아기 주라”」, 『4·3과 평화』 39호, 제주 4·3평화재단, 2020년 5월호
- 존 베벌리, 『하위주체성과 재현』(박정원 옮김), 그린비출판사, 2013.
- 허호준, 『4·3, 미국을 묻다』, 도서출판 선인, 2021.
- 호미 바바, 류승구 옮김, 『국민과 서사』, 후마니타스, 2011.
- Walter Lafeber, *The New Empir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ABSTRACT

‘4·3 Testimony Narrative’ of East Asian Subaltern
in the Decolonized Cold War

Ko, Myeong-cheol*

If 4·3 literature is creating an institutional recovery for 4·3 through the best literary achievement of the nation's imagination, 4·3 literature in need of creative renewal should explore literary tasks that cannot be fully captured by the nation's imagination. To this en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oral testimony narrative," which cannot be fully reproduced with literary truths biased toward text-centrism, which values literacy, unlike the literary ideology of the existing 4·3 literature. This is because 4·3 literature can't escape from the capture of national imagination with representative truth implied by literal representation based on the modern literary nature of text-centrism. And we can't neglect other representative truth reveals what happened to be implied by 'oral performance representation' different from a literal representation as what 4·3 literature's subaltern changes towards resistant subject against East Asia's 'decolonized Cold War.'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yes of subaltern as 4·3 generation which have not been discussed in 4·3 literature. I examine subaltern's voices with the problematics of 'oral testimony', which can't be fully guaranteed with literal representative truth for national imagination. So, I take a notice the presence of subaltern's 'oral represent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wangwoon University.

concerning the unspeakable catastrophe of 4·3, as well as I look at the subaltern's attitude of never surrendering the reality of the island community's male absence, and creates a leading 'matriarchal space'. And I look at the resistant affection implied by 'oral truth' though performing indigenous ritual by subaltern. Besides, I noticed the testimony as 4·3 resistant subject shows the political and sociological imagination about decolonized Cold War in East Asia as what 4·3 resistant/revolution emerges.

As such, East Asian subaltern's '4·3 testimony narrative' in decolonized Cold War after World War 2 emerges the productive studies seeking renewal and new horizons of 4·3 literature beyond the imagination of the modern nation-state captured western centrism.

Key-words: decolonized Cold War, East Asian subaltern, 4·3 Testimony Narrative, oral performance representation, oral performance truth

논문투고일 2021. 5. 25.

심사완료일 2021. 7. 11.

게재확정일 2021. 7. 15.